

중년층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 의사 분석*

홍 형 옥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유 병 선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박사과정)

서 은 미*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석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노인층의 노후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 여부에 따른 입주시기와 입주이유를 분석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2000년에 7.1%에 불과했던 노인층이 2020년에는 13.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노후주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 고령화 사회의 중심이 될 예비 노인층의 노후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와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 여부에 따른 입주시기와 입주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노후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친구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노후에 원하는 거주형태에 대해서는 노인을 위주로 설계된 주택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족과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 여부에 따른 입주시기와 입주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입주할 의사가 없는 집단과 의사가 많은 집단을 비교하였다. 의사가 많은 집단이 훨씬 수직으로 우세하였는데 입주 의사가 없는 집단이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능력이 더 위로 나타났다. 또한, 입주의사가 많은 집단에게 이사시기를 질문한 결과, 도움이 필요할 때 입주하겠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다. 반면, 입주의사가 없는 집단에게 이사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현재 주택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노인공동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아직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노후를 대비하는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되는 한 스스로를 책임지고, 노인공동생활주택에는 도움이 필요할 때 들어가려는 생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가족이 좀 더 효율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우선 되어야 하며,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야 노후를 위한 효과적인 주거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한, 고령사회의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해 지원되고, 연구되었음.